

# 美서도 신약성공 확률 1%... 실패 용인 벤처문화 필요

## 위기의 K-바이오

### ④ 신뢰를 되찾는 길 (끝)

단기적인 성과에만 투자금 몰려 높아진 기대-기업 부담 '악순환' 투명한 임상공개가 '신뢰 지름길' 정책 방향도 긴 호흡으로 이어가야

바이오 업계가 역대 최악의 위기를 체감하고 있다.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바이오 혁신 전략을 펴고 있지만, 일부 기업들의 문제가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탓이다. 뿌리를 내릴 시간이 부족했기에 흔들림은 더욱 컸다. 독자 기술을 안고 글로벌 시장을 향해 큰 꿈을 꾸던 토종 바이오 벤처들의 시름도 깊어졌다.

전문가들은 과도하게 높아진 기대와 현실간의 괴리가 K-바이오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례적인 지원 정책으로 바이오 산업에만 쏟던 자금은 혼란을 더욱 부추겼다. 전문가들은 기대치를 낮추는 것을 가장 시급한 숙제로 꼽았다. 혁신 신약 개발은 성공보다 실패가 많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이오 산업이 깊게 뿌리내릴 수 있는 생태계의 최우선 조건이라는 지적이다.

### ◆돈은 많은데 투자처가 없다

12일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 바이오 산업이 다친 문제에 대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꼽았다. 바이오 산업에 쏟던 투자금은 많은데, 투자할 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바이오업계로 돈이 몰리는데는 정부의 역할이 컸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5월, 바이오헬스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오는 2025년 까지 연간 4조원을 투입하겠다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하 바 있다. 지난 2일에는 혁신 바이오의약품의 개발을 지원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첨단바이오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연세대학교 노경태 생명공학과 교수는 "믿을 수 있는 기술평가를 통해 정말 미래 활용 가치가 높은 기술을 바탕으로 투자금이 모이고, 그 자금을 통해 벤처를 이끌어가는 것이 이상적인 과정"이라며 "하지만 한국 바이오 산업은 기술평가가 뒷받침 되지 않은 채 단기 성과에 돈이 급하게 모이고, 이 때문에 기대치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기대치가 높아지면 시장의 부담도 커지지만, 신약을 개발해야 하는 기업의 부담도 커지기 마련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신약은 개발 기간이 길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투자가 이뤄져야하고, 특히 한국 바이오산업은 역사가 짧기 때문에 더 길게 보고 투자를 이어나가야 한다"며 "하지만 이렇게 급하게 자금이 모이고, 빠지다보면 기업은 단기 성과에 집착할 수밖에 없고,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는 시장은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 관계자는 "이번 한일간의 분쟁에서도 나타났지만 한국은 기반기술이 취약하다. 밑바닥부터 꾸준한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다"며 "하지만 정부 공무원들도 단기 성과에 집착해 자꾸 큰 걸터트리리는 방향으로만 투자가 이뤄지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 ◆'실패는 당연' 문화 필요

신뢰를 얻으려는 기업의 노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A바이오 업체 대표는 "국내 바이오 업체들은 미국 식품의약품(FDA)에서 임상 승인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주가가 치솟지만, 사실상 미국은 돈만 있으면 모두 임상을 할 수 있으나 제품화가 어려운 국가에 속한다"며 "신라젠의 경우 왜 임상 2상이 끝나고 기술수출이 되지 않았을까, 왜 임상 결과를 제대로 공

개하지 않았을까 의문을 가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자체 보유 기술에 대한 임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시장의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이 관계자는 "원천 기술에 자신이 있다면 단계마다 학회 발표는 물론, 저명한 국제 학술지 등에 논문을 발표하는 노력으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일부 후보물질들은 전임상, 임상1상 등 초기 단계에서 글로벌 제약사들에 기술수출 레코드를 쌓는 것도 신뢰를 얻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K-바이오의 안정적인 생태계가 갖

춰지려면 실패를 용인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필수 요소다.

B바이오 기업 대표는 "세계 가장 큰 바이오 시장인 미국에서도 신약의 성공 확률이 1%도 안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국내 업체들의 신약 실패는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라며 "하지만 시장도 투자자도 그 실패를 용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도 무리하게 신약 개발을 밀어부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라젠의 경우에도 이번 임상이 실패했어도, 펙사백이란 기술을 믿는다면 다른 임상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지는 것이 바이오 산업이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이라며 "실패를 당연히 여기고, 그 실패를 바탕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바이오 산업이 뿌리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 이스라엘 방문 후, AI·로봇 등 '신성장' 모색

(신동빈 롯데 회장)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과 면담 첨단기술·스타트업 투자방안 논의 현지 스타트업·연구소 둘러보기로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세계 최고의 혁신국가로 불리는 이스라엘을 방문한 롯데 신동빈 회장이 11일(현지시각) 엘리 코헨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을 만나 이스라엘의 첨단기술 기반 기업 및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방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앞두고 양국간 경제 교류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신 회장은 이스라엘의 혁신 농업, 로봇, 인공지능 기반의 기업들과 협업할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스타트업에 투자할 기회를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11일(현지시간) 신동빈 롯데 회장(오른쪽)과 엘리 코헨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지주

엘리 코헨 장관은 전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이스라엘에 R&D 센터 설립 등을 통해 현지 스타트업에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다며, 롯데에도 이를 위한 충분한 지원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이들은 한 이스라엘 FTA가 체결되면

양국간의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의견을 같이하고, 상호 교류 및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신 회장은 정부 관계자들과의 미팅에 이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스타트업과 신기술 업체, 연구소 등을 잇따라 방문하며 롯데와의 시너지 창출 및 벤처마케팅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스타트업 및 하이테크 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온 이스라엘은, 적은 인구와 군사적 긴장상황이라는 조건 속에서도 글로벌 상위권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 강국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스라엘의 스타트업은 하이테크 기술 기반 중심으로, 현재 나스닥에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많은 기업이 상장돼 있다. 이스라엘 스타트업에 대한 글로벌 벤처캐피탈과 글로벌 IT기업들의 관심과 투자도 점

차 확대되고 있다.

롯데 역시 첨단 기술을 보유한 이스라엘 스타트업에 오래 전부터 관심을 가져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통부문에서 옴니채널 구축과 이커머스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온 롯데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물류 풀필먼트 등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신회장은 12일에는 아디브바루크 이스라엘 수출공사 사장을 만난다. 이후 신 회장은 농업기술업체 '테블', 이스라엘 최대 식품사 스트라우스의 푸드테크 인큐베이터인 '더 키친', 이스라엘 최고 수준의 투자회사 '피탕고 벤처캐피탈', 세계 5대 기초과학 연구소인 '와이즈만 연구소' 등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스타트업과 신기술 업체, 연구소를 잇달아 방문해 사업현황에 대한 소개를 듣고 신기술 시연을 직접 관람할 계획이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 >> 1면 '시멘트 생산 어쩌나'서 계속

## 속도내는 시멘트 국산화 보조금 등 규제는 '빈칸'

이 가운데 72%인 677만t이 레미콘의 혼합재로 쓰였다. 시멘트 원료로 쓰인 것은 10%인 94만t에 불과하다. 나머지 160만t(17%)은 버려졌다. 다만 지난해 시멘트사들이 사용한 국내산 석탄재는 총 186만6000t으로 재고 등을 활용한 수치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산 석탄재는 t당 5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가져온다. 해상 운반비, 하역비 등의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1만원 정도가 남는다. 반면 국내산 석탄재는 2만5000원의 보조금을 받으면 대부분을 비용으로 쓴다. 해안에 있는 시멘트공장 입장에서 보조금을 받고 돈을 일부 남길 수 있는 일본산 석탄재를 쓰는 것이 유리한 셈"이라고 전했다.

한·일 경제 전쟁에서 등장한 석탄재로 유탄을 맞은 시멘트업계는 일본산 석탄재가 수입 차질을 빚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달라는 입장이다. 수입산 석탄재가 점점 국내산으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멘트협회 관계자는 "2020년대 중반까엔 수입산 대부분이 국산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본산 석탄재의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방식은 검사기관 수를 확대하거나 강원도에 검사 분원을 추가로 대기 시간을 줄이고 통관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내에서 나오는 석탄재를 매립하는 등 버리지 않고 시멘트와 같이 절실히 필요한 산업현장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 이번에 불거진 석탄재를 놓고 '탈일본'을 지향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조언이다. /김승호 기자 bada@

## 日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1조원 기술보증

### 중기부-기보

기업으로 해소 위해 특별보증 마련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보증기금과 추가경정예산으로 일본 수출규제 피해구제, 미세먼지 저감 시설 도입, 제2벤처 붐 가시화 등을 위해 1조원 규모의 기술보증금을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기술보증에는 추정안엔 없었던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신규지원도 포함됐다.

중기부와 기보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에 3300억원 규모의 기술보증금을 제공한다. 기보 자체 재원과 은행협약 출연금 등을 통해 만기연장·신규보증 등이 지원된다. 이번 기보 추경에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특별보증이 마련됐다.

수출규제로 피해를 봤거나 볼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기존보증에 대해 약 1300억원 규모의 만기 연장을 제공한다.

자체 재원 등을 기반으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긴급 유동성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2000억원 규모 특별보증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특히 2000억원 중 1000억원은 기보와 국민은행 간 업무협약을 통한 특별 출연금으로 지원한다.

중기부와 기보는 추경안을 기반으로 총 6700억원의 보증도 공급한다. 보증

은 ▲수출 중소기업 보증 3000억원 ▲미세먼지 저감 시설 도입기업 및 기술개발기업 보증 2500억원 ▲제2벤처 붐 가시화를 위한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및 '엔젤플러스 프로그램 보증' 1200억원이 지급된다.

먼저 수출 중소기업 보증은 미·중 무역 분쟁 등 외부 경제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수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수출 신뢰도 확보를 위한 투자 확보 방안으로 보증 한도도 30억원에서 70억원으로 확대한다.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전결권 등 심사기준도 완화한다. /배한남 기자